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3. 4.(월) 11:00,  
(지면) 2024. 3. 5.(화) 조간

배포 2024. 3. 4.(월) 06:00

##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생태계 조사·점검 강화

- 3월부터 '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' 추진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와 해양환경공단(이사장 한기준)은 3월부터 '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'를 추진한다.

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보전을 위한 정책·연구 자료에 활용할 해양생태계 현황 및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. 이 조사는 우리 바다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는 기본조사와, 주요 하구와 내만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매년 조사하는 중점조사로 구분된다.

올해는 남해동부와 동해, 제주 권역의 289개 기본조사 정점을 포함하여 전국 연안·갯벌·암반생태계 총 672개 정점을 조사할 예정이다.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한 '주제도'를 제작하고, 이 외에 기후변화 적응, 생물다양성 보전 등 전 세계적인 현안들을 고려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개선 계획 수립 등 연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.

특히, 올해에는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%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적 목표\*를 이행하기 위해, 동해 용승해역과 서해 무인도서 해역에서 대형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.

\*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(CBD)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 및 해상의 30%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·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쿤밍-몬트리올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채택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, 기후변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발굴해 낼 것”이라며, “특히, 국제 현안인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 등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실	책임자	과 장	신재영 (044-200-5310)
	해양생태과	담당자	사무관	강성민 (044-200-5318)

## □ 조사 개요

- 해양생태계 현황 파악 및 변화 대응을 위해 권역별 정기 조사를 통한 시계열 자료 확보 및 해양생태계 구조·기능 진단

- 우리나라를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, 2년 주기로 매년 1개 권역\* 조사

\* (홀수해) 서해·남해서부 / (짝수해) 동해·남해동부·제주

\*\* (위탁수행기관) 해양환경공단 / ('24년예산) 68억원 / (조사기간) '24년 1~12월

## □ 주요 내용

- (기본·중점조사) '24년 총 672개(기본 289 + 중점 383) 정점 조사

구 분		총 1,071정점			
		기본조사(688정점)		중점조사(383정점)	
		홀수해(399정점)	짝수해(289정점)		
갯벌 생태계	퇴적/대형저서	234	132	189	
	염생식물	78 (312)	44 (176)	63 (252)	
연안 생태계	부유/저서	56	54	42	
	유영	20 (76)	34 (88)	12 (54)	
암반생태계		11	25	22	
바닷새		-	-	35	
근해		-	-	20	

- (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) 국내·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형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

- 동해 용승해역, 서해 무인도서 인근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지정 기초자료 마련(생태계조사, 문헌조사 등)

\*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 등 장래에 보호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후보지 조사 대상 선정 시 고려

## □ 향후 일정

- 사업 착수보고회('24.3) 개최
- 갯벌·연안·암반·바닷새·보호구역 후보지 조사 수행(~'24.12)
- 중간보고회('24.9) 및 결과보고회('24.12) 개최
- 조사결과 진단·평가를 통한 해양생태계 정보지도 작성, 조사연보·해양생태총서·소식지 등 결과 홍보자료 작성·배포(~'25.上)